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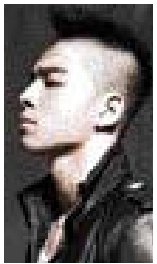
# 엔터테인먼트

## Entertainment

### 빅뱅의 태양 첫 솔로음반

빅뱅의 태양(본명 동영배·22)이 솔로 첫 정규음반인 1집 '솔라(Solar)'를 다음달 1일 발표한다. 1집은 다음달 1일 3만장 한정판인 디럭스 에디션, 다음달 9일 일반판으로 나눠 발매된다.

디럭스 에디션에는 일반판 11곡에 더해 미니음반 히트곡 '기도' '나만 바라봐'가 보너스 트랙으로 실려 총 13곡으로 구성된다. 수록사는 오는 25~30일 1집 수록곡을 매일 한곡씩 태양의 공식 홈페이지(www.ygbigbang.com/taeyang)에 공개한다.



## “세상과 소통하게 만든 건 영화”

텔런트 구혜선의 이름 앞에는 어느 새부터인가 ‘팔방미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소설을 쓰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등 브라운관 밖에서 중형무진 활약하는 그가 이번에는 장편영화를 처음으로 연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 구혜선



“연출은 싸우고 부대끼면서 하는 것 내 성격 긍정적으로 바뀌게 했죠”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구혜선은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꺼내자 웃음부터 터뜨렸다. “하하. 너무 잘 포장해주셔서... 그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민망하죠. 어디가 팔방미인이야. 암만 봐도 모르겠는데...”

그는 “나는 딱히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하다”면서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 좋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잘하는 걸로 발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가 연출한 ‘요술’은 음악 학교에 다니는 세 남녀의 사랑과 질투를 그린 음악 영화로 24일 개봉한다. 그는 영화를 구상하다 켈리스트의 공연을 보고 “공연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관객에게 멜로를 기대하면 실망할 거라고 꼭 전해주고 싶다”면서 “청춘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구혜선은 자신의 영화에 몇 점을 줬을까? “제가 혼자 한 영화가 아니라 점수를 못 주겠어요. 많은 스태프가 다 한 거라서... 저 빼고는 100점이요. 하하”

그는 영화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툭툭 끊어진다든가 평에 대해서는 “불친절한 영화였을 것”이라면서 “영상과 음악 위주로 구성했고 스토리는 포기하고 갔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니라 뼈대만 주고 보는 분들에게 맡기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각조각 장면을 앞뒤로 섞은 것도 있다”면서 “스토리가 아니라 시각과 청각으로 감정을 끌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영화감독이 되기까지는 지난해 작고한 고(故) 정승혜 영화사 아침 대표의 영향이 컸다. 구혜선은 “글 쓰는데 욕심이 많아서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검사를 맡으려 갔는데 ‘너 영화해’ 하셨다”면서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일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한 영화 연출은 그의 삶을 많이 바꿔줬다. “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제가 소극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이예요. 제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만들었어요. 연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는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면 벽이 생기기도 하는데, 연출은 싸우고 부대끼고 의견 나누면서 하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 게 좋냐고 물었다.

“연기자나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민망하고, 화가 이런 건 더 죽겠고. 그냥 구혜선씨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구혜선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관심이 많았다. 그런 관심이 10년, 20년 계속된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날 방구석에서 음악 듣고 일기 쓰고 그랬다. 앞집 언니는 뮤지컬 배우여서 공짜 표를 줬고 피아니스트 하던 분 집에도 놀러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웠다”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다음 연출작으로 소녀 감성의 첫사랑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시나리오도 이미 써줬다. 연기자로서는 뮤지컬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출연할 예정이다. 연출과 연기 외의 다양한 활동도 물론 계속할 생각이다.

그가 닦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다. “이외수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술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시죠. 트위터 팔로워가 김연아 선수 다음으로 많더라고요. 하하.”

연습뉴스

### 새 주말극 '결혼해주세요' 김지영

“둘째 출산 미루고 선택한 작품이 악물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텔런트 김지영이 KBS 2TV의 새 주말극 ‘결혼해주세요’에서 여주부로 브라운관에 돌아온다.

김지영은 15일 서울 대치동 컨벤션 마벨러스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둘째 가지려던 계획을 무산시키고 선택한 작품”이라며 “이 악물고 열심히 했으니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텔런트 남성진과 결혼해 2008년 11월 첫 아들을 얻은 그는 “감독님과 친분이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권유로 이 작품을 하게 됐다”며 “가족들 모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줘서 편하게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의 시부모는 텔런트 남일우와 김용림이다.

‘수상한 삼형제’ 후속으로 방영되는 ‘결혼해주세요’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네 커플을 통해 우리 시대의 사랑과 결혼, 이혼에 대해 돌아본다. ‘수상한 삼형제’가 막장 드라마란 비난을 받았던 점을 의식한듯 김지영은 “우리 드라마에서 말도 안되는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막장 드라마라 하면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우리 드라마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극중 제가 맡은 정임처럼 주부가 가수가 되는 설정이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말도 안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결혼해주세요’에서 김지영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는 아내 남정임 역을 맡았다.

자신의 내조로 별 볼일 없는 대학원생 남편 태호(이종혁)를 명문대 사회학과 교수로 만들었지만 이후 잘 나가는 남편으로부터 소외 받고 자신의 삶에 점차 회의를 느끼게 된다. 그는 처음 대본을 읽을 때 눈물이 났다고 했다.

“내용이 무겁지 않으면서도 순간순간 삶에 대해 깨닫게 해줘요. 마음을 끄는 내용이 담겼어요. 시청자분들도 드라마를 보시면 ‘아 맞아 그래’라면서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지영은 “함께 출연하는 연기자 모두 만족하면서 촬영하고 있고 나도 마치 작두 타듯이 연기하고 있다”며 “시청자분들도 즐겁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습뉴스

**제발 멈추기만 해도 행복해요**

마이 드림

**마이 드림 임상결과**

남성형용수분화 촉진

마이 드림은 남성형용수분화 촉진 효과가 뛰어난 성분으로, 남성형용수분화 촉진 효과가 뛰어난 성분으로, 남성형용수분화 촉진 효과가 뛰어난 성분으로...

마이 드림

마이 드림

000-0000-0000

02-0000-0000